

수원시 도시정책지표 활용지표: 순이동률, 주간인구지수

인구이동을 통해 본 수원시 인구 특성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박민진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요약

■ 전출입이동에 대한 지표: '순이동률'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 전환

- 수원 인구는 2020년 이후 순유입으로 전환(23년 0.49)되었고, 특히, 청년층(19-34세) 순이동률이 전체 평균보다 높음(2023년 2.0)
- 전입·전출 사유는 2023년 기준 '주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10년 전에 비해 다소 감소한 반면, '직업', '가족' 요인으로 인한 전입·전출은 증가함

■ 통근·통학이동에 대한 지표: '주간인구지수'

- 2020년 기준 91.3로 유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별로는, 팔달구가 가장 높고 영통구, 권선구, 장안구 순
- 수원시민 88.7%는 경기도로 통근·통학하며, 9.5%는 서울로 통근·통학

정책제언

■ 인구이동 특성 반영, 청년 인구를 위한 일자리와 맞춤형 정주기반 마련

- 수원이 가지는 수도권 입지의 장점과 산업적 기반을 토대로 ICT, 바이오, 반도체 중심 산업을 육성해 고부가가치 청년 일자리 창출
- 대학과 협력을 통한 창업보육센터 및 스타트업 허브 설립 등 창업지원과 인재 정착 지원
- 세어하우스 및 공공임대주택 등 안정적인 주거 마련을 위해 청년층 맞춤형 주거 공급

■ 생활인구 확대 및 도시 활력 증진을 위한 도시 공간 설계

- 업무, 상업, 문화 기능을 결합한 도심의 복합 공간 조성으로 주간인구 증가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에 청년 커뮤니티와 창작 공간을 포함한 여가시설 확충
- 상권과 주거지를 연계한 도심 상권 활성화로 청년층 소비를 유도하고, 접근성을 강화하여 야간 문화행사 및 지역축제 확대를 통해 생활인구 체류 시간 증가 노력

1. 인구이동: 전출입이동과 주간인구

□ 인구는 도시의 규모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정·정책을 위한 가장 중요한 영역이며, 인구이동은 ‘출생’, ‘사망’과 함께 인구학의 3대 요소 중 하나

- 인구이동은 일정한 지역에 살던 사람이 다른 곳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것을 의미하며, 출생이나 사망과는 다르게 단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 있으며, 정책이나 경제 상황 등 사회경제적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인구변화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 행사(민보경, 2017; 이상림·최인선, 2023)
 - 개인의 인구이동은 개인 특성(연령, 소득, 직업, 학력 등)에 따라 거주지역을 선택한 결과이며, 지역의 입장에서 인구이동은 지역이 제공하는 서비스(주거, 교통, 환경 등)의 편익과 비용을 평가한 결과임
 - 인구이동은 이동목적과 기간에 따라 장기이동(예, 평생 또는 세대에 걸친 종교·인종 이동), 중기이동(일정기간의 거주지 이동), 단기이동(통근, 통학, 출장 등)으로 구분

□ 인구이동을 통해 본 수원시 인구 특성을 ‘순이동률’과 ‘주간인구’지수를 통해 파악

- 도시 행정수요의 실질적 반영을 위해 등록인구(정주인구)와 함께 실질적 지역 인구로서 유동인구, 주간인구를 포함하는 생활인구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순이동률은 인구이동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
 - 전입인구에서 전출인구를 뺀 순이동인구를 주민등록연앙인구로 나눈 비율을 의미
 - 순이동률이 양(+)이면 해당 기간 다른 지역에서 오는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보다 많은 순유입이 발생한 것이며, 음(-)의 경우 전출인구가 전입인구보다 많은 것으로 순유출을 의미함
 - 주간인구지수는 도시공동화 현상, 도시의 기능적 분화 등 도시의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
 - 상주인구에 통근·통학을 목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유입된 인구를 합하고 다른 지역으로 통근·통학을 목적으로 유출된 인구를 빼서 상주인구로 나눈 비율을 의미
 - 100을 기준으로 100 미만인 경우에는 통근·통학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됨을 의미하고, 100 이상인 경우는 다른 지역에서 유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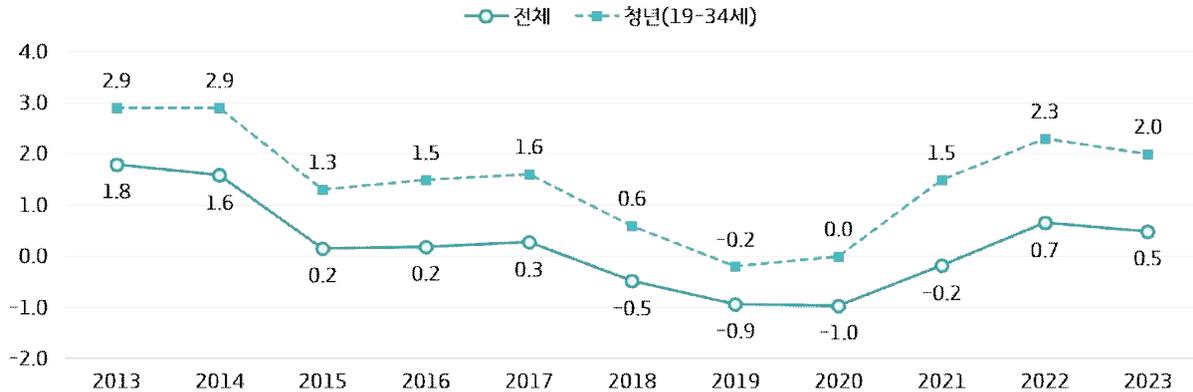
2. 순이동률: 전출입 인구이동

□ 수원시 순이동률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20년 이후 반등하여 최근 순유입 발생

- 최근 10년간 수원시 순이동률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2018-2021년간 음(-) 값의 순유출 발생
 - 2020년 -1.0 이후 반등하여 2022년 0.7, 2023년 0.5로 증가 추세
- 청년(19-34세)의 순이동률은 2.0으로 전체 인구 중 청년층의 유입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
 - 최근 10년간 19-34세 청년 순이동률을 살펴보면, 2014년 2.9이후 점차 감소하여 2019년 -0.2로 떨어진 이후 반등하여 2023년 2로 나타남
 - 청년 순이동률의 추이는 전체 순이동률의 흐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청년층의 순이동률이 전체보다 높게 나타나 상대적으로 청년층의 순이동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음

<수원시 순이동률 추이(전체, 청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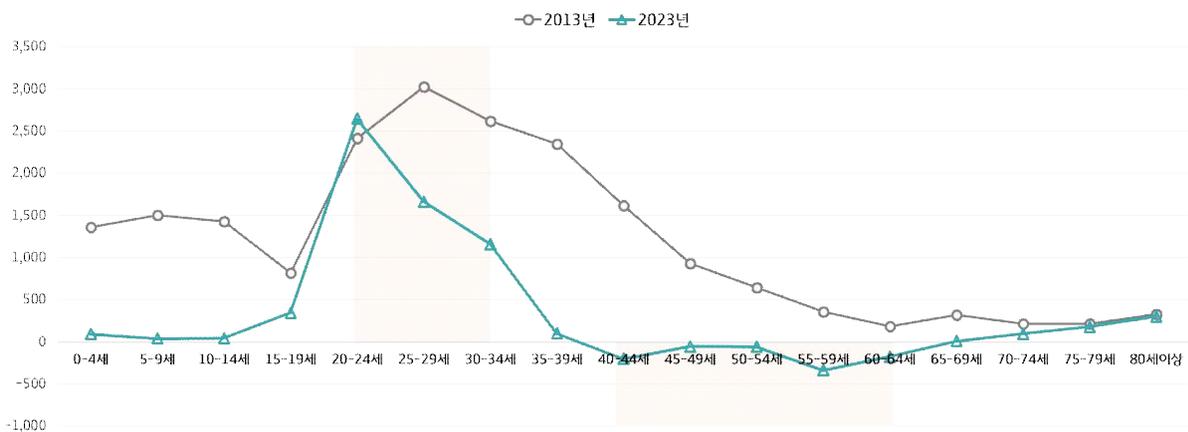
| 출처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13-2023)

□ 2023년 연령별 순이동자는 상대적으로 20-34세가 많지만 10년 전에 비해 순이동 규모 감소

- 2023년은 2013년에 비해 30-40대의 순이동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20-24세의 순이동은 증가
 - 10년 전에 비해 20-24세를 제외한 전 연령대의 순이동 감소, 특히 19세 이하, 30-40대의 순이동이 크게 감소
 - 2023년 40-64세 인구는 순유출(-)이 발생하여 전입인구보다 전출인구가 많음

<수원시 연령별 순이동 비교(2013-2023)>

(단위: 명)



| 출처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13-2023)

□ 인근 지자체와 최근 10년간 순이동자수 추이를 비교한 결과, 수원시는 2018-2021년 순유출, 2022년부터는 순유입으로 전환

- 10년 전인 2013년에는 수원시(20,286명)와 용인시(19,350명)의 순이동 규모가 유사하였으나, 2023년은 수원시의 순이동(5,796명)이 용인시(994명)보다 많음
 - 용인시는 2013년 이후 큰 폭으로 순이동자수 감소하다 2015년 이후 증가, 2021년 다시 감소하는 등 빈번한 변화를 보임

- 성남시는 최근 10년간 순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
- 화성시는 2015년 순유입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후 계속해서 대규모의 순유입 발생

<최근 10년간 지자체별 순이동자수 추이(2013-2023)>

(단위: 명)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수원시	20,286	18,258	1,862	2,235	3,312	-5,758	-11,068	-11,314	-2,097	7,706	5,796
성남시	-4,537	-10,160	-9,070	-2,082	-10,510	-15,534	-13,381	-3,598	-6,852	-6,133	-2,458
용인시	19,395	13,451	8,152	9,984	9,553	28,284	22,964	12,693	2,798	-1,727	994
화성시	-158	6,118	50,669	39,036	45,213	62,608	51,838	36,165	28,479	20,938	30,0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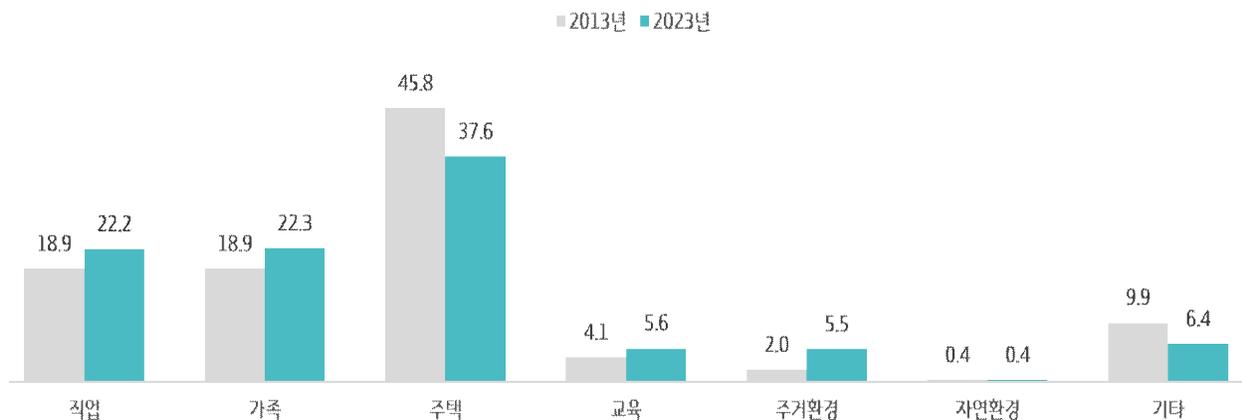
| 출처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13-2023)

□ 거주이동의 사유 분석: 전입신고서 기반 통계 활용

- 수원시에 전입 또는 전출의 사유는 전입신고서를 기반으로 확인 가능
 - 전입신고서에 근거한 국내인구이동통계 자료를 분석하여 수원시에서 전입 또는 전출한 가구의 이동사유¹⁾ 파악
- 수원시 전입사유를 살펴보면, ‘주택’-‘가족’-‘직업’ 순
 - ‘주택’을 사유로 전입하는 비율은 2013년은 전체의 45.8%, 2023년은 37.6%로 나타나 주택으로 인한 이동 비율 감소
 - 직업, 가족, 교육, 주거환경의 이유로 수원시로 전입하는 비율은 10년 전 대비 증가

<수원시 총전입 이동사유 비율(2013, 2023) >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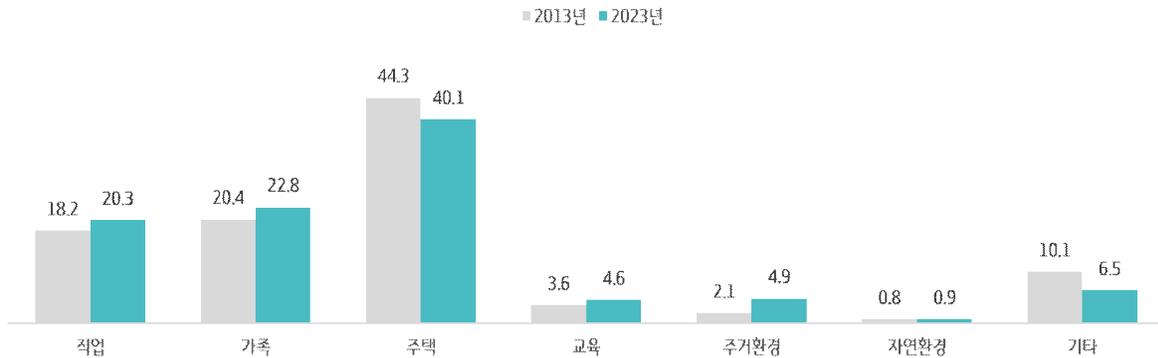
| 출처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13, 2023)

- 수원시 전출사유를 살펴보면, ‘주택’으로 인한 이동이 가장 크지만 10년 전 대비 4.2%p 하락
 - 직업, 가족, 교육, 주거환경의 이유로 수원시에서 전출하는 비율은 10년 전 대비 증가

1) 전입신고서의 이동사유는 크게 7개로 구분: 직업(취업, 사업, 직장 이전 등), 가족(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주택(주택구입, 계약만료, 재개발 등), 교육(진학, 학업, 자녀교육 등), 주거환경(교통, 문화, 편의시설 등), 자연환경(건강, 공해, 전원생활 등), 기타

<수원시 총전출 이동사유 비율(2013, 2023) >

(단위: %)



| 출처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13, 2023)

3. 수원시 주간인구지수와 통근·통학 인구

□ 최근 25년간 추이를 보면, 수원시 주간인구지수는 하락 추세에서 2020년 반등하여 91.3

- 2020년 기준 수원과 용인은 주간인구지수 100 미만(주간유출), 성남과 화성은 100 이상(주간유입)
 - (수원) 1995년 102에서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 2000년 100 밑으로 하락하였으며, 2020년 91.3
 - (용인) 1995년 115에서 2005년 95로 하락, 2020년 90.0
 - (성남) 1995년 82에서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 2015년 99.7로 증가, 2020년 104.3
 - (화성) 1995년 111에서 2005년 큰 폭으로 상승, 2010년부터 하락 추세, 2020년 106.7

<주간인구지수 추이(1995-2020)>

구분	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수원시	102.0	99.0	93.0	91.2	90.8	91.3
용인시	115.0	104.0	95.0	91.4	90.8	90.0
성남시	82.0	89.0	92.0	90.1	99.7	104.3
화성시	111.0	111.0	129.0	117.4	118.6	106.7

| 출처 : 통계청, 인구총조사(1995, 2000, 2005, 2010, 2015, 2020)

□ 수원시민 타지역으로의 통근·통학 증가

- 수원시로의 통근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통근은 유출보다 유입이 큼
 - 수원시 상주인구는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통근인구 유입과 유출의 차이는 2010년 -82,893명, 2015년 -99,609명, 2020년 -102,559명으로 격차 증가
 - 통학인구의 유입과 유출의 차이는 2010년 -8,700명, 2015년 -5,251명으로 점차 감소하다가 2020년 2,641명으로 유입인구가 유출인구보다 더 많은 것을 확인

<수원시 주간인구 추이>

(단위: 명)

연도	상주인구	유입인구		유출인구		주간인구	주간인구지수
		통근	통학	통근	통학		
2010	1,043,767	89,914	20,772	172,807	29,472	952,174	91.2
2015	1,143,538	138,524	32,477	238,133	37,728	1,038,678	90.8
2020	1,154,430	144,993	23,555	247,552	20,914	1,054,512	9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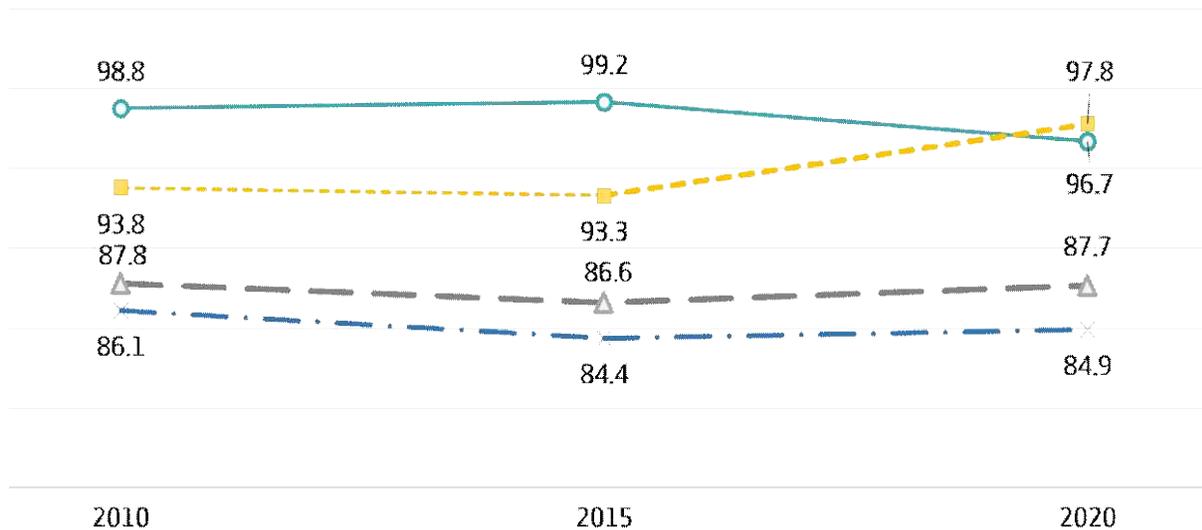
| 출처 : 통계청, 인구총조사(2010)10%표본조사; 인구총조사(2015)20%표본조사; 인구총조사(2020)20%표본조사

□ 행정구별 주간인구지수 분석 결과, 팔달구는 증가, 영통구는 감소 추세

- 2020년 기준 주간인구지수는 팔달구(97.8)가 가장 높고 영통구(96.7), 권선구(87.7), 장안구(84.9) 순
- 영통구를 제외한 3개구의 주간인구지수는 2015년에 비해 상승, 상승폭은 팔달구가 가장 높음

<수원시 행정구역별 주간인구지수(2010-2020)>

○ 영통구 ■ 팔달구 ▲ 권선구 — 장안구



| 출처 : 통계청, 인구총조사(2010) 10%표본조사; 인구총조사(2015) 20%표본조사; 인구총조사(2020) 20%표본조사

- 2010년, 2020년 행정구별로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팔달구의 주간인구지수 증가
 - (장안구) 유입과 유출인구 차이는 2010년 대비 2020년 유사한 수준이나 주간인구지수 감소(86.1 → 84.9)
 - (권선구) 주간인구지수는 2010년과 2020년 유사(87.8→87.7). 주간인구는 영통구 다음으로 많으며, 통근유입 인구가 2010년 대비 2020년 크게 증가. 2020년 기준 유입 대비 유출인구수는 행정구 중 가장 높음
 - (팔달구) 2010년 대비 2020년 주간인구지수는 4개 행정구 중에서 팔달구만 증가(93.8 → 97.8)
 - (영통구) 2010년 대비 2020년 주간인구지수 감소(98.8→96.7). 2010년 주간인구수는 권선구가 가장 많았으나, 2020년에는 영통구가 가장 많음

<수원시 행정구별 주간인구 추이>

(단위: 명)

구분	상주인구 (A)	유입인구(B)			유출인구(C)			차이 (B-C)	주간인구 (A+B-C)	주간인구 지수	
		통근	통학	계	통근	통학	계				
장안구	2010년	283,249	13,025	4,350	17,375	48,361	8,380	56,741	-39,366	243,883	86.1
	2020년	268,061	17,273	6,319	23,592	58,624	5,378	64,002	-40,410	227,651	84.9
권선구	2010년	295,522	18,530	4,333	22,863	50,733	8,108	58,841	-35,978	259,544	87.8
	2020년	358,058	35,821	4,002	39,823	78,022	5,808	83,830	-44,007	314,051	87.7
팔달구	2010년	209,089	21,678	5,598	27,276	34,383	5,954	40,337	-13,061	196,028	93.8
	2020년	168,504	26,188	2,692	28,880	30,193	2,406	32,599	-3,719	164,785	97.8
영통구	2010년	255,907	36,681	6,491	43,172	39,330	7,030	46,360	-3,188	252,719	98.8
	2020년	359,807	65,711	10,542	76,253	80,713	7,322	88,035	-11,782	348,025	96.7

| 출처 : 통계청, 인구총조사(2010) 10%표본조사; 인구총조사(2015) 20%표본조사; 인구총조사(2020) 20%표본조사

□ 수원시민 통근통학지를 살펴본 결과, 경기도로 통근통학하는 인구는 전체의 88.7%

- 경기도로 통근통학하는 인구의 비율은 2010년 87.3%에 비해 2020년 88.7%로 약간 증가
- 수원시민의 9.5%는 서울로 통근통학하며,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의 통근통학 비율은 1.2%

<수원시민 통근통학지별 통근통학인구 변화>

(단위: 명, %)

연도	서울	인천	경기	기타
2020	64,996 (9.5%)	4,296 (0.6%)	607,429 (88.7%)	8,020 (1.2%)
2010	60,980 (9.5%)	3,431 (0.5%)	562,284 (87.3%)	17,108 (2.7%)

| 출처 : 통계청, 인구총조사(2010) 10% 표본조사; 인구총조사(2020) 20% 표본조사

- 거주지별 통근통학인구는 영통구(219,662명), 권선구(209,144명), 장안구(157,144명), 팔달구(98,791명) 순
- 장안구와 영통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서울로 통근통학하는 비중이 크고, 권선구와 팔달구는 상대적으로 경기로 통근통학하는 비중이 큼

<거주지별 통근통학지 및 통근통학 인구>

(단위: 명, %)

구분	서울	인천	경기	기타	계
장안구	17,769 (11.3%)	1,261 (0.8%)	136,439 (86.8%)	1,675 (1.1%)	157,144 (100%)
권선구	16,658 (8.0%)	1,437 (0.7%)	188,214 (90.0%)	2,835 (1.4%)	209,144 (100%)
팔달구	7,380 (7.5%)	502 (0.5%)	89,992 (91.1%)	917 (0.9%)	98,791 (100%)
영통구	23,189 (10.6%)	1,096 (0.5%)	192,784 (87.8%)	2,593 (1.2%)	219,662 (100%)

| 출처 : 통계청, 인구총조사(2020) 20% 표본조사

4. 시사점

□ 수원시는 청년 인구 유입으로 순이동 증가, 청년층의 정주여건 제고를 위한 정책 지원 필요

- 최근 전입이 크게 증가한 20대 청년층의 좋은 일자리 확대 및 정주여건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 (좋은 일자리의 확충) 화성의 지속적인 인구 순유입은 첨단산업이 청년 유입의 주요 요인임을 시사함. 수원시의 경우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에는 제약이 있어 도시형 첨단산업육성 등이 필요
 -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창업 및 스타트업 육성) 창업·청년 도시 이미지 구축, ICT, 바이오 분야 연구역량이 우수한 성균관대, 아주대, 경기대 등과의 협력을 통한 창업이나 취업 지원을 통해 지역 내 졸업생의 정착률 제고 필요
 - (정주여건 개선) 진학, 취업 등의 이유로 수원으로 이동하는 청년층의 정주여건 제고를 위한 정책 중요. 특히, 생애 주기를 고려하여 수원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안정적인 정주여건 제공 필요
 - (문화 인프라 구축) 청년층이 선호하는 여가시설, 공연장, 공유 오피스 등을 포함하여 문화·상업 중심지를 조성하고, 창업 인프라와 문화 콘텐츠를 결합해 도심 생활인구 증가를 유도하고 도심재생과도 연계 가능
- 10년 전은 30-40대 가구 유입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순유출이 나타남. 30-40대 가구가 인근 도시로 유출되는 것을 완화하기 위한 주거, 교육 정책 보완 필요
 - 자녀를 양육하는 30-40대 가구의 유출을 감소하기 위해 안정적인 주거여건 조성이 필수적
 - 수원으로 주 전입 사유는 주택인 점을 고려하여, 유자녀 가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필요
 - 정부의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을 30-40대 가구로 확대 적용토록 하는 방안이나 자녀수에 따라 주택 구입 및 임대 지원금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 검토
 - 30-40대 가구의 유출 주요 요인 중 하나는 교육 인프라 경쟁력일수 있으며, 초·중·고 학교 신설 및 리모델링을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혁신학교 및 국제학교 설립으로 교육 선택지 확대

□ 수도권 입지 강점 활용,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도시기반 강화

- (광역교통망의 확대) 수원은 수원역을 중심으로 GTX-C, KTX, 분당선이 교차하며 수도권 연결성이 높음. 인구 증가 지역(영통구, 권선구)의 교통망 확대는 생활인구 증가와 정착 유도에 필요. GTX-C 노선을 중심으로 청년 주거 밀집지역과 산업단지를 연결하여 유입인구 촉진 수단으로 활용
- (도시내 교통 환경 개선) 주간인구지수(91.3, 2020년 기준)와 통근 유출 초과는 도시 내부 교통망 개선의 시급성을 보여줌. 미래지향적인 스마트 모빌리티 도입
- (도심 내 복합적 업무·문화 공간 조성) 도심인구의 이동성 증가는 주간인구와 소비 증대의 핵심적 요인. 도심 복합공간 설계를 통해 업무, 상업, 문화 기능을 결합한 복합공간을 조성하고 상권과 주거지 연계 강화, 도심 상권 활성화로 생활인구 증대 유도

■ 참고문헌

민보경(2022), 청년은 어느 지역에 살고, 어디로 이동하는가?, 국가미래전략 Insight 58호, 국회미래연구원
 민보경·변미리(2017), 서울인구는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가? 전출입이동의 공간분석과 유형화, 서울도시연구 제18권 제4호, pp.85-102
 이상림·최인선(2023), 국내 인구가동의 변동 양상과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통계청, 각년도, 국내인구이동통계
 통계청, 각년도, 인구총조사



SRI 수원시정연구원
SUWON RESEARCH INSTITUTE

Brief

※ 본 간행물은 집필자의 개인이견으로 수원시정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발행처 수원시정연구원 | 발행인 김성진 | 편집위원장 정재진 | 편집위원 강은하 김도훈 김타균 유현희 최석환 한연주